



## **After Occupy**

Hui, Yuk

*Published in:*  
Contemporary Art Journal

*Publication date:*  
2013

*Document Version*  
Publisher's PDF, also known as Version of record

[Link to publication](#)

*Citation for published version (APA):*  
Hui, Y. (2013). After Occupy. *Contemporary Art Journal*, 15(4), 71-76.  
[http://digitalmilieu.net/documents/Hui\\_after%20occupy\\_CAJKorean.pdf](http://digitalmilieu.net/documents/Hui_after%20occupy_CAJKorean.pdf)

### **General rights**

Copyright and moral rights for the publications made accessible in the public portal are retained by the authors and/or other copyright owners and it is a condition of accessing publications that users recognise and abide by the legal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se rights.

- Users may download and print one copy of any publication from the public portal for the purpose of private study or research.
- You may not further distribute the material or use it for any profit-making activity or commercial gain
- You may freely distribute the URL identifying the publication in the public portal ?

### **Take down policy**

If you believe that this document breaches copyright please contact us providing details, and we will remove access to the work immediately and investigate your claim.

machetes in Cuban art. The national labels were flags of convenience for marketers, useful in neatly and simply identifying under-exploited tracts of art for new speculators unschooled in the history of avant-garde and contemporary art. Since those labels were so much insisted upon, they had a deep effect upon the way that art was made, seen and written about.

Internationally, if yBa was the first example of a revamped national art made for a global stage that had been transform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communism, then the very thing that assured its notoriety also eventually killed it. Nations with more dramatic stories and extreme political conditions –and far more dynamic economically and important politically– started to produce art that fitted the global model, driving Britain to the sidelines. For how could the depredations even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and the oppressive character of a regime that remained nominally democratic compare to the sweeping transformations of, say, China with its precipitate economic growth and urbanisation, and its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economy of the US and the West as a whole; or of Russia with the misery of its vast masses, contrasted with the flaunted wealth of a tiny few, and the ruthlessness, corruption and ambition of its dictatorship? ❶

## Yuk Hui, After Occupy, in Contemporary art Journal, 2013, vol.15, Korea

### 점거 이후



DOXA, Creative Space—Art and Spatial Resistance in Asia, 2012, <http://www.doxacollective.org>

“사회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다는 가설로부터 나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가설은 도시사회가 완전한 도시화의 과정으로부터 비롯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화는 현재에는 가상적이지만 미래에는 현실이 될 것이다.”

—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도시혁명』

도시화는 오늘날 실체가 되었다. 모든 공간은 생산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폐쇄되어 방치된 공장터도 화랑이나 호텔로 개조된다. 공간은 더 이상 인간의 주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생산성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나는 4년 전 ‘창조적인 공간Creative Space’<sup>(1)</sup>이라는 작업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조사한 후 “창조적 공간: 동아시아에서의 예술과 공간을 이용한 저항Creative Space: Art and Spatial Resistance in East Asia” (2013)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에 의해 원래 4개 국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쓰여진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중국어로 모두 번역되었다. 이 보고서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중국이 도시화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중국인들을 주요한 독자로 상정했다. 이는 중국에서 (공간을 이용한) 저항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화의 결과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도시화 과정은 엄격하며 공격적이고 정치사상이나 역사사상의 동질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 듯 보인다. 문화와 예술에 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항상 유럽을 동아시아의 미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자유주의나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암울할지라도 동아시아는 유럽의 미래가 될 것이다.

도시화의 미래

(1) <http://www.doxacollective.org/2011/03/26/creative-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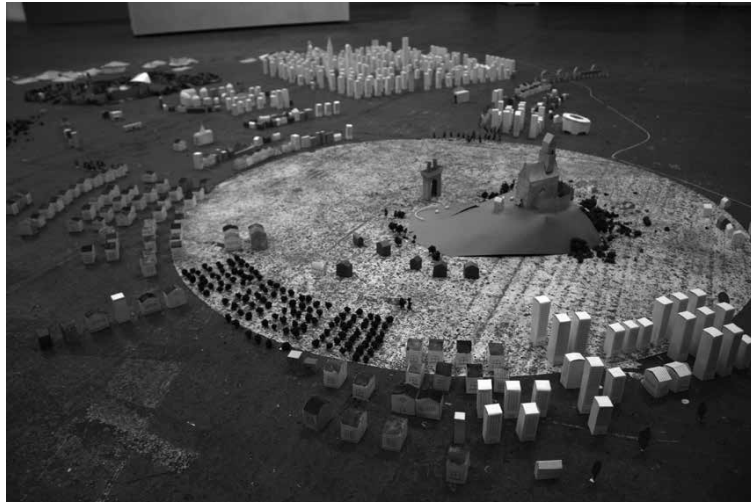
서두에서부터 나는 특히 도시발전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맥락 내에서 공간 구축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조건화되는 방법을 살펴보고, 공간의 가능성에 관해 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칸트Kant와 피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를 연구하고자 했고, 직관이나 다매체환경media rich environment 등에 관해 연구하고자 했다.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홍콩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트센터를 착공하고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다.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낀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홍콩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그저 일반적인 도시generic city를 제안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건축가가 어떻게 이 도시를 고급스럽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뉴욕, 싱가포르, 홍콩 등 같은 도시를 뜻한다 -역주) 도시는 표면적으로 차별화된 동질성을 통해 차이가 부여될 뿐이다. 일반적 도시는 미래에 드러낼 무엇이 아니라 현재 전지구적인 현상이다. 놀랍게도 내가 만났던 많은 비평가들 모두 이러한 예술관련 시설이 홍콩이라는 지역에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듯 보였다.

콜하스가 자신의 책에서 “도시화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반면 건축은 코카콜라처럼 실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데올로기로 가공되었을지라도 건축은 왜곡된 욕구를 거장으로 충족시키는 실재의 생산물이다. 도시화는 코카콜라를 둘러싸고 퍼지는 광고와 비교된다. 순수하고 스펙터클한 이데올로기이다. 모든 사회생활을 스펙터클로 환원시키는 현대의 자본주의는 단지 우리 자신의 소외만을 드러낼 뿐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가장 걸출한 생산물masterpiece은 도시화의 꿈이다”라고 썼듯이, 콜하스에게 도시화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mission의 대상이다. 이 글은 콜하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1961년 <극세상황주의자> 6호에 실린 ‘통합도시계획국 기본프로그램Basic Program of the Bureau of Unitary Urbanism’ 선언에서 인용된 것이다. 콜하스는 이 개념을 차용해 자신의 건축작품의 토대로 삼았다. 도시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건축 같은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광고 없이 코카콜라가 현재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회랍이 ‘arkhitckon’이 건축의 장인을 의미할 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건축architecture이라는 단어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이 건축은 도시화 없이 건축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나무, 시멘트 등의 재료로 건물을 짓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뜻 밖에도

가라타니 고진Karatani Kojin은 콜하스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로 정의했으며, 우리가 흔히 도시라 부르는 것을 통해 전세계적인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을 제안했다.<sup>(2)</sup> 그러나 나는 결코 그의 이러한 제안을 확신할 수 없다. 그는 아마도 마르크스나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가 주장한 “창조적인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을 융합해 제시했을 뿐이다. 슈페터에게 자본주의의 성공이 자체의 파괴에 한발 다가선 것이라면,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생존조건을 위해 자본주의 자체의 존재조건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느린 혁명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장기지속longue durée’이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이나 문화산업이 주거지구 고급화gentrification의 표준이 되고 있다. 예술가들은 삶의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예술의 생산이나 재현이 아니라 음식, 술, 의복, 자동차, 가구처럼 이를 소비하는 취향이나 양식을 통해 예술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오랫동안 노숙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오가와 테츠오Ogawa Tetsuo는 “일본에서 입주작가 프로그램은 지역재건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흔히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기업의 협력과 자금지원을 받아 주도한다”라고 썼다. 주거지구 고급화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서글픈 이야기를 통해 진행된다. 경찰에 의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원주민이 축출되면 울타리가 쳐진 높은 주거건물이 지어지며 이 건물들 옆으로 안락한 식당, 화랑, 미술관 등이 건축된다. 이 시설들이 건립된 이후 몇 년 동안은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화랑을 임대해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의례 그렇듯 주거지의 가격이 급등하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이주해온다.

예술이나 문화산업은 도시생활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조직화를 위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크리스마스 며칠전 쿠르푸스텐담Kurfürstendamm을 걸으며 유리로 된 전시상자 속에서 “물질적 실존으로부터의 해방Emanzipation von Materiellem Sein”과 “정신을 통한 자유Freiheit durch den Geist”라 손으로 쓰여진 두 구호를 발견했다. 이 구호들은 마르크스나 헤겔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가? 이 구호들은 모두 역사적 유토피학과 정신의 변증법을 지칭하고 있지 않은가? 이 구호들을 고안한 사람은 분명



박은선, <리버풀-서울 도시공간 프로젝트>, 2010

마르크스와 헤겔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거나 적어도 이들의 사상에 관해 위키피디아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히 말해 우리는 이 문구를 고안해 낸 사람이 마르크스와 헤겔의 사상과 베를린에서 가장 큰 시퍼거리의 소비주의를 병치시켜 일종의 아이러니를 시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러니는 결국 슬픈 무언을 남기지 않는가? 그 이유는 모든 표현들이 소비주의의 미학에 쉽게 흡수되어 버리며 저항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조차도 상품의 홍수 속에 자신들이 마보처럼 놓여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스펙터를 사회의 중심부에 서있다.

우리에게 미적 경험이나 고대의 공동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은 ‘테크네techné’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취향taste로서의 예술로서 이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를 목표로 한다. 티에리 드 뒤브Thierry de Duve가 지적했듯, 현대미술에서 명사로서의 예술이 칸트와 같은 18세기 사상이가 제안했던 명사로서의 미를 대체한다.<sup>(3)</sup> 예술은 포괄적인 것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축적이 발생하는 표면이 된다. 기능주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계몽의 변증법Dialectics of Enlightenment』에서 논의한 문화산업의 미학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맥북에어MacBook Air를 통해 미학과 기능주의의 새로운 결합이 구체화되었으며 미학과 경험의 새로운 정치학을 탄생시켰다. “거리는

르 코르뷔지에가 간과한 기능, 즉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징적이며 즐거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거리는 우리가 놀고 배우는 장소이다. 거리는 무질서로 넘친다.”<sup>(4)</sup> 라고 르베르브가 썼듯이 르베르브나 코르뷔지에를 비평한 당대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논의는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전체 담론이 어떻게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해로 이어진다. 보다 높고 좋고 예술과 디자인으로 풍요로워진 지역이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생산적일 수 있는가?

### 저항의 생산성

두 번째 변화는 2011년 10월 15일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점거운동the occupy movement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홍콩으로 돌아가 즉시 이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는 본업에 복귀하기 전까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3개월 동안 나는 참가자들과 대안경제, 특히 포틀라치podatch, 포틀라치는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 거주했던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관습으로 추장은 보다 많은 선물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다-역주)와 같은 선물경제gift economy에 관해 읽고 토론했다. 데이비드 그레버David Graeber는 점거운동의 핵심인물로 활동했으며 나는 그의 글을 이전에 번역한 적이 있었다. 점거운동 기간 중 그는 내게 뉴욕의 상황에 관한 최신정보를 알려 주었다. 우리는 비판적인 경제사학을 위해 그레버,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 마르크스, 스미스Smith 등의 저작을 검토했다. 나는 홍콩에서의 점거운동이 자본주의라는 추상적 실체와 투쟁하기보다 공간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했다.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는 단지 주식시장에만 타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도시화와 주거지 고급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잉글랜드와 미국에서 과도한 주택대출거품이 터졌을 때 명확해졌다. 금융화처럼 도시화 역시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는 창조적인 파괴의 한 과정으로 농촌지역의 도시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며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의 도입을 통해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도시지역의 고급주택직화가 일어난다.

동아시아 특히 홍콩의 문제는 자유시장이 항상 홍콩의 경제적 성공을 상징하는 신화가 되어왔으나 홍콩의 자본주의와 중국 공산당, 중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혼란스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념과 같은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나 이데올로기는 대안적인

(2) 『은유로서의 건축: 언어, 수, 문, 문화를 위한 가라타니 고진의 서론 중국어판

(3) Thierry de Duve, *Kant after Duchamp*, The MIT Press, 1998

(4) Henry Lefebvre,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p.18

생활양식이나 경제발전이 커다란 위협요소이다. 임대료는 일년 만에 두 배로 뛰어들고 자산가격은 3개월 마다 치솟는다. 우리 세대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하는 저수 받은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주택의 고급화가 단지 주거지만이 아니라 모든 공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모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이키는 미야히타Miyata 공원을 나이키공원으로 개명하고자 도쿄의 시부야 구청과 협력하여 공원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 벽을 설치했다. 나이키는 공원의 실제적인 운영자가 되어, 노숙자와 예술가들이 공원에서 추방되었으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 역시 사라졌다. 공간들을 단순히 용도에 맞춰 개조했을 뿐이지만 이 공간들은 제약과 기술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든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권리는 박탈당했다. 역설적인 것은 인간의 능력 중에는 자기애적인 자부심이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음에도 생존을 위한 방법을 항상 찾아낸다.

점거운동으로 인해 우리 책의 지향점이 다소 바뀌었다. 예술이 이미 주거지구 고급화의 표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펙터클에 대항하기 위해 스펙터클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점거란 항상 공간을 점거하는 것이고, 공적인 공간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점거가 비생산적이지 아니라 지나치게 생산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생산성으로 인해 공간은 불거리가 넘치는 곳spectacle으로 변한다. 스펙터클은 복제의 능력을 지닌 무엇이다. 이는 미술시장보다는 주택지 고급화의 전체 과정에서 예술자체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예술은 모든 행동의 유형을 흡수하는데 있어 자본보다 더 유연하다. 예술이 자본과 함께 작용할 때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상황주의자들이 예술을 해체하고자 한 시도는 예술적 재현 속에 효과적으로 재흡수 되었다. 점거운동 이후 '점거occupy'라는 단어는 2012년 베를린 비엔날레와 도큐멘타 13에서 이와 유사한 주제를 채택함으로써, 가장 급진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부한 단어들 중 하나가 되었다.

나의 가설은 1999년 시애틀을 점거 이후 저항의 양상이 스펙터클의 논리에 따라 두 유형으로 균질화되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어느 것도 단순히 스펙터클로서 자체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펙터클은 예외 없이 창조적인 파괴를

수반한다. 책에 실린 일부 기고문에서 다른 대안적인 전략을 반영하거나 논의를 담고 있으며 저항의 이러한 양상에 대한 비평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부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다른 단계로 진이되었거나 종결되었다. 이러한 도시운동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오랜 시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듯 보이나 여기에서는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저항에 대한 유목적인 접근, 이는 '모래'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모래의 은유는 하나의 사회운동을 즉각적인 반응으로 간주하거나, 사회적 관계망 같은 것을 통해 참여자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이러한 통합의 능력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향한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접근법으로 보인다. "원조적 단순성에 관한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와 단순한 요소들을 결합시킨 복잡성은 폐기되어야 한다"<sup>(5)</sup>라고 르페브르는 말한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러한 단순성에 대한 비평과 복잡성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를 들어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의 「다중multitude」<sup>(6)</sup>은 어떤 유기적인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언어, 영향, 교통과 같은 공통의 요소를 통해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저항으로서 축제festivals as resistance.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제도 아래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해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저항으로서 축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선물경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로부터 차용한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포틀라치potlache에 관한 개념이나 로저 카이유아Roger Caillois의 '놀이'에 관한 개념을 생각해보면, 저항으로서의 축제라는 개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범주를 해체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항으로서의 축제는 교환exchange보다는 증여giving에 근거하고 있다. 완전히 상이한 도덕적, 경제적 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점유하고 점거하며 거리에서 항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파티는 종식되어야 하며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종식될 것이다. 그러면 이후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결코 점거운동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운동은 홍콩에서의 경우처럼 내게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운동은 종식되어야 하나, 보다 심도 깊은 형태로 재개되어야 한다. 이 운동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우리가 포스트모던적인 정치 없음no politics과 불확실함의 감정을 남기는 저항의 새로운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동안 그래픽의 책을 번역하면서 모스의 선물경제로의 회귀와 고대 공동체의 부정부주의적인 본질에 관한 연구, 아르헨티나와 시애틀에서의 점거운동, 신, 마녀, 그리고 약령에 사로잡힌 공동체의 신화적 기원에 대한 그의 설명이 충분히 매력적임을 발견했다. 다른 한편 나는 세계사의 구조에 대한 고진 가라타니의 분석이 그래픽의 프로그램에 비판을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시작했다.<sup>(7)</sup> 고진에게 선물경제는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억압적인 것의 회귀"(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를 입을 경우 억압적인 것은 형태를 달리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귀한다는 프로이트의 주요 이론—역주)라 할 수 있다. 그의 새로운 경제나 제도에 대한 전망은 선물경제에 근거하고 있으나 동시에 훨씬 폭넓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민족국가가 자주권을 선물로서 양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썼을 때 그의 상상력은 다소 정곡을 빚나간 것처럼 보였다. 선물경제로의 회귀를 고려해서는 안되나 적어도 우리는 이에 대해 훨씬 깊게 천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점거 이후, 비생산적인 공공적 폐허를 향해?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통해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의 팔랑스테르phalanstere(사회주의적 생활공동체—역주), 모든 작업들을 예술적 생산으로 전환시키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발상, 그리고 모스의 협동조합운동 등과 같이 18세기에 행해진 여러

시도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 주제를 역시 매우 매력적이었다. 우한Wuhan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청년자실험실Youth Autonomous Lab 작가들의 작업은 내게 강렬한 자극이 되었으며 나는 이를 보다 깊이 이론화하고자 했다. 이 단체의 일부 회원 예술가들은 작은 마을의 한 장소를 임대했다. 이들은 부정부주의자들이었으나 부정부주의가 불법인 관계로 자신들이 부정부주의자임을 밝힐 수 없었다! 이 단체의 회원 중 한 명인 마이디안Maidian은 민속음악가인 샤오 허Xiao Hu를 마을로 초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샤오 허는 글로리어스 파머시Glorious Pharmacy라는 헤비메탈 밴드에서 기타연주자로 활동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민요를 부르는 가수이며 오늘날 중국 제일의 민요가수로 명성을 얻고 있다. 마이디안은 2010년 자신이 속한 밴드와 유럽으로 연주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 펑크 음악가로, 자신을 10인의 가장 창조적인 젊은이로 지명하고자 한다는 전화를 지역신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이 제안을 즉각 거절했으나 기사를 쓸 권리를 가진 측은 지역신문이었다. 이러한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때때로 눈요기 거리가 되거나 되지 않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제기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스펙터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장시간 토론했다. 모든 예술적 생산은 사회적 관계의 재현을 위한 미학의 일부로 쉽게 흡수된다. 그의 작업의 핵심은 탈주하는 것, 정신적 세계를 향해서가 아니라 공공적인 폐허, 생산성 없는 폐허로의 탈주선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폐허는 예술이 없어도 미칠일 수 있는 장소이다. 우리는 이를 느낄 수 있으나 대부분의

Nicolas Sauter & Ashley Wong, *NonSpace*, 2-channel installation, 23min, 2009



(8) Simmel, *The Rain, 1911*, in *Georg Simmel, 1858-1918*, Kurt Wolff tran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59, Georg

(5) 르페브르, *Ibid.*, p.45

(6) Michael Hardt and Tony Negri, *The Multitude*, Penguin Books, 2005

(7)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Chinese translation), 2012

경우 이를 소유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의 것이므로 집멜이 주목했듯 이는 인간작업의 정신적 형태에 대한 자연의 승리이다.<sup>(9)</sup> 반면 집멜은 폐허를 가장 평화로운 장소 중의 하나로 이를 “귀향”과 비교한다. 이러한 ‘친근함Heimlich’의 개념은 프로이트의 ‘섬뜩함(Das Unheimliche, the uncanny)’의 개념과 대조된다. (독일어에서 ‘heimlich’는 ‘친숙한’, ‘은밀한’의 의미이나 그 부정어로 사용된 ‘unheimlich’는 ‘기괴한’, ‘섬뜩한’의 의미이다. 프로이트는 오랫동안 섬뜩한 경험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관심을 가졌다.역주) 이는 폐허의 변증법적인 순간으로, 인간의 실존에 기이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인류문명의 파괴라는 인상을 준다. 반면 이는 조화를 의미하는 지각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마이다안은 공공적인 폐허의 ‘보수repairing’라는 개념에 관해 언급했다. 우한대학교 호숫가 옆에는 한 플랫폼이 있다. 한 학생이 수영 중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학생의 가족은 플랫폼의 관리책임이 있는 우한대학교와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학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했으며 철책을 설치해 플랫폼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이었지만 어리석은 해결책일 뿐이었다. 현재 플랫폼과 호숫가는 방지되어 폐허로 변해있다. 그들은 이 폐허에 안내판이나 지도, 노선 등의 표지판을 세우고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부활시키고자 한다. 나는 “공공적인 폐허를 보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비판적 질문을 통해 이를 바라보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상상한다. 첫째 방치된 공간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되찾을 수 있는가? 만일 누군가 금기로부터 탈출을 축하하거나 공공적인 공간의 복구를 선언하고자 파티를 연다면 이는 또 다른 스펙터클이 될 것이다. 혹은, 우리는 폐허를 폐허 자체로 유지하는 것, 즉 폐허를 고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가? -달리 말해 집멜이 말한 폐허로의 “귀향”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식의 변증법적 순간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상적인 작업을 통해 사물을 은폐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차이의 경험이 대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이러한 대립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에 내재된 무엇으로 의문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누구나 그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모든 곳이 비어있으며 모든 곳이 현상이므로 저항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침묵과 무의식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에 이끌린다. 자본주의의 혁명은 항상 침묵 속에서 진행되며 공공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의 금융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최초의 신용카드는 1969년 사용되었으며, 이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들이 벌어진 불과 1년 후의 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미국에서의 연금제도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별다른 저항 없이 도입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혁명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으나 오늘날 ‘점거’를 넘어 사유하기 위해 침묵 속에 던져지는 이러한 질문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버가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마을에 세워진 무정부적인 조직에 관해 설명할 때 그는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묘사했던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과 혁명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슬프게 탄탄하거나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대신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다. 단일도시계획국의 기초프로그램(Programme Elémentaire du Bureau d'Urbanisme Unitaire)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마도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의 혁명을 매우 다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길들여진 시기에 앞서는 어떤 단계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상의 혁명, 즉 모든 사람에게 의한 혼란의 전유와 그것의 끊임 없는 강화와 수행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건축과 도시계획을 발명했다.”<sup>(10)</sup>

## After Occupy

“I'll begin with the following hypothesis: society has been completely urbanized. This hypothesis implies a definition: An urban society is a society that results from a process of complete urbanization. This urbanization is virtual today, but will become real in the future.”

— *Urban Revolution*, Henri Lefebvre

Urbanisation is actual today. All spaces have to become productive. Even those ruins of abandoned industrial sites are modified into galleries, hotels. Space is no longer a place where man dwells, but rather becomes a prosthetic support of human productivity. In view of this condition, four years ago, I proposed a project called “Creative Space”<sup>(11)</sup>, which looks into the problematics of urbanisation and we come out with an edited volume titled *Creative Space: Art and Spatial Resistance in East Asia*(2013). The chapters from artists and theorists were originally written in 4 languages (Korean, Chinese, Japanese, English) and finally all translated into Chinese. The audience was supposed to be Chinese, since I think China has the most serious problem with urbanisation compared to other East

Asian countries. It is not only because that resistance in China is illegal, but also the economic development make people blind to most of the consequences of urbanisation that are taking place now. The urbanisation process in East Asia is rigorous and aggressive, and it appears to be irreversible due to the homogenisation of political and historical thoughts. Thinking about art and culture, people always see Europe as the future of East Asia – a historical question – but maybe in terms of neoliberal development and urbanisation. East Asia will be the future of Europe, though this time, a totally dark one.

### Future of Urbanism

At the very beginning I want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space, to look at how our life is conditioned by the construction of spac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urban development and new technologies. I wanted to do a theoretical study from Immanuel Kant to Peter Sloterdijk; I wanted to look at intuitions, media rich environment, etc. The turning point happened when Rem Koolhaas was pitching a project in Hong Kong to build one of the largest art centres in East

(11) <http://www.doxacollective.org/2011/03/26/creative-space>

Asia, and I was involved in certain extent. It was at that moment, I felt things are turning a bit insane. I asked myself: how can these people who know nothing of this place to gentrify the city, especially an architect who is famous for his proposal of the generic city? A generic city is one that only gives difference through homogeneity, that makes differentiations on the surface. A generic city is no longer one to come, but a global phenomenon. Surprisingly those critical theorists that I encountered seem to agree that the development of these art facilities are necessary for the region.

For Koolhaas, urbanism is no longer a question, but rather an illusion, as he has written in his book: "urbanism doesn't exist. It is only an ideology in Marx's sense of the word. Architecture really exists, like Coca-Cola: Though coated with ideology, it is a real production, falsely satisfying a falsified need. Urbanism is comparable to the advertising propagated around Coca-Cola - pure spectacular ideology. Modern capitalism which organised the reduction of all social life to a spectacle, is incapable of presenting any spectacle other than that of our own alienation. Its urbanistic dream is its masterpiece." In fact this quote doesn't come from Koolhaas but from a manifesto titled *Basic Program of the Bureau of Unitary Urbanism appeared in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6*, 1961. But Koolhaas kind of hijacked it, and as the founding stone of his architectural works. It could be true that urbanism doesn't exist, but it may also be true that architecture doesn't exist as well. I am not sure if a Coca-Cola would still be Coca-Cola if there were no advertisements, in the same token, I am not sure if architecture would be still architecture without urbanism, sure enough there will be buildings made of wood, of concrete, of all type of materials - as the Greek word *arkhitekton* means master of building, but maybe not the word architecture that we understand today. Funny enough, Kojin Karatani recognized that Koolhaas is a real Marxist, his proposal is to destroy global capitalism through the generic city<sup>(2)</sup>. I have never been sure of this proposition, I think Karatani mixed up the different notion of "creative destruction" of Marx and Joseph Schumpeter, for Schumpeter the success of capitalism is a step closer to its own destruction, while for Marx creatively destroying its own condition of existence in order to create a new condition of survival, this is the slow revolution of capitalism.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understand that Fernand Braudel's *longue durée* was important for the analysis of capitalism.

Art and cultural industry are becoming, if I can say, organs of gentrification. Artists play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creating social milieu of living, one finds oneself through engaging with art, not through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art, but taste and style, like food, wine, cloths, cars, furnitures. Tetsuo Ogawa, a Japanese activist who involved in the past decades in fighting for the right of homeless people wrote "In Japan an artist-in-residence program means an art event for the sake of area rehabilitation, which is typically lead by the authoritie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businesses, and supported by the funding of corporations." The sad story of gentrification is the same everywhere, often habitants were kicked out of their old neighbourhood by police, then tall and gated residential buildings are build, next to them will be cozy restaurants and galleries, museums, artists and designers are invited to rent those galleries for a relatively reasonable price for the first few years. Then the high property price is justified, middle class or high-income family will move in.

Art and cultural industry is taking a new role not only in the organization of urban life, but also in the organization of urban space. It was 2012 a few days before Christmas, when I was walking on Kurfürstendamm, I saw two hand-written slogans inside a display box made of glass. On one side we read: *Emancipation von Materiellen Sein*; on the other side: *Freiheit durch den Geist*. Was they not direct references to Marx and Hegel? Both historical materialism and dialectics of the spirit? The person who has designed it must have studied some Marx and Hegel, or at least read from Wikipedia. Lets be kind, we assume that he or she may want to create an irony by juxtaposing Marx and Hegel with the consumerism of Berlin's largest shopping street. But didn't this irony finally remain a sad one? Because all gestures can be easily absorbed by the aesthetics of consumerism, and finally those who had the will to resistant find themselves like fools among commodities. In fact, we are right in the time of the society of spectacles.

It is no longer art as *techné* that creates and

gives us experience of beauty and communities as it was in ancient time, but taste that governs our body and takes individualisation as its goal. As Thierry de Duve showed that in contemporary art, the noun art replaces the noun beauty of the 18th century proposed by thinkers such as Kant<sup>(3)</sup>. Art becomes the generic, becomes a surface on which new forms of accumulation happens. Functionalism has been long bypassed in the aesthetic dimension of the culture industry, discussed by Adorno and Horkheimer in their *Dialectics of Enlightenment*, the new combination of aesthetics and functionalism concretised, for example in a MacBook Air, constitutes a new politics of aesthetics and experience. It would be intriguing for us today to think of Henri Lefebvre and urbanists of his generation's critique of Le Corbusier, as Lefebvre wrote "the street contains functions that were overlooked by Le Corbusier: the informative function, the symbolic function, the ludic function. The street is a place to play and learn. The street is disorder"<sup>(4)</sup>. The story goes, when we see how the whole discourse of Richard Florida becomes a paradigm for urban development. How can more playful, art-and-design-enriched neighbourhood be more productive than others?

#### Productivity of Resistance

The second move comes from the occupy movement started globally on the 15th October 2011. I went back to Hong Kong and I was immediately absorbed in the movement for more than 3 months before I went back to work. During these three months, I tried to read and discuss together with the participants about alternative economies, especially topics around gift economy, potlatch, etc. It happened that David Graeber became a figure of the occupy movement, and it also happened that I translated his works before. During the occupy, he was updating me about the situation in New York. We went through the works of Graeber, Simmel, Bernard Stiegler, Marx, Smith etc in order to think through a critical history of economy. At the same time, it seems clearer and clearer to me that in Hong Kong the occupy is not about fighting an abstract entity called capitalism but rather a concrete problem concerning spa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not simply the stock market, but urbanisation and gentrification. It is evident when we think of the bubble

of mortgages firstly happened in England and in the USA. Financialisation is not completely virtual, it just wants to make lands widely virtual so it can speculate on them. Like Financialisation, urbanisation is not a concrete substance, it is clear that it is a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firstly urbanisation of rural areas, and then constant gentrification of urban areas to increase the property price through sales of life-styles.

The specific problem in East Asia, especially in Hong Kong is that free market has been always a myth of its economical triumph and there exists a confusion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ocialism and communism, any intervention will be considered as a move towards socialism. Ideology creates great fear and threat to any alternative form of liv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ough sadly people don't really look into the true meaning of this word. The rent can be doubled in a year time, the property price keeps on soaring every 3 months. People of my generation are condemned to be slaves who work all life long for buying a small apartment. But attention here, gentrification is not a program that targets only at residential areas, but also penetrates into all public spaces. Gentrification is pervasive. In Tokyo, in the Miyahita park, Nike was trying to work with the Shibuya ward to rename the park as Nike Park, build skate park and climbing wall, and then Nike will become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park. Homeless people and artists were kicked out. There is virtually no space for us. There is only adaptation of spaces, and these spaces become limitations and or technics of control. They can always do other things to make a living no matter what it is, but the fact is that they are deprived of their rights, their efforts to live. The ironic side is that there seems to be a narcissistic proud in the ability of human beings: they can always find ways to survive, though they become more and more like bare life.

The occupy movement changed somewhat the direction of this book: if art is already the organon of gentrification, then what else can we do? What can happen when we use spectacle against spectacle? Occupy, is always to occupy space, to reclaim public spaces. But the problem is not that occupy is unproductive, but probably because it is too productive. This productivity makes it easily become a spectacle. A spectacle is something that have the ability of reproduction. It has

(2) In Kojin Karatani's preface to the Chinese translation of *Architecture as Metaphor: Language, Number, Money*

(3) Thierry de Duve, *Kant after Duchamp*, The MIT Press, 1998

(4) Henry Lefebvre,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p.18

not much to do with art market, but rather the concept of art itself in the whole process of gentrification. Art is probably more flexible than capital in absorbing all type of gestures. When art works with capital, they can virtually absorb everything. The attempts to dissolve art by the situationists in the 60s and 70s have been effectively reabsorbed in art production. After the Occupy movement,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word "Occupy" is one of the most banal word in 2012, when Berlin Biennale and Documenta 13 kind of use it as a theme, that makes Occupy itself an artistic gesture, not matter how radical it is, by the end it is simply a gesture.

My hypothesis is that after the battle of Seattle in 1999, forms of resistance are homogenized into two types following the logic of spectacles. The ultimate problem is: nothing can maintains itself permanently as a mere spectacle. Spectacles are not exempted from creative destructions. Some of the contributions to this book are reflections, discussions on the other alternative strategies, and critique of these forms of resistance. At the same time, some of these projects are already finished, they have moved to another stage or they are simply terminated. When I closely look into these urban movements, there seems to me remain two blind spots to be examined in length, but here we can only discuss them very briefly.

Firstly the nomadic approach of resistance, that always comes with a sand metaphor. The first is the sand metaphor, that sees a social movement as an immediate response, or assembling participants together, for example through social networks. This ability to aggregation, no matter in a peaceful or violent form, seems to me very a disembodied approach to the idea of community. Lefebvre has written "the Cartesian schema of primitive simplicity and the complication obtained by combining simple elements must be abandoned"<sup>(5)</sup>. After decades, this critique of simplicity and emphasis on emergence and complexity is taking a new direction, for example as the gesture of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s *multitude*<sup>(6)</sup>, that tends to detach itself from any organic setting, and aggregate through some commonalities such as language, affects, sufferings.

Secondly, festivals as resistance. Henri Lefebvre has this idea of festivals as a resistance or a way to dissolve the social relations set up in the capitalistic sys-

tem. It is probably not coincidence when we consider the idea of having Potlatch of George Bataille, who took it in turn from Marcel Mauss'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gift economy and the idea of games and plays of Roger Caillois. The festival form of resistance as a way to liquidise social relations and existing economic categories in order to reproduce new forms of social relations based less on exchange but more on giving. This proposition for a total different moral and economical practice is revolutionary. But it is also the problem today when we think of squatting, occupy or even protest on the street. This party may have to end, may not be immediately, but it will end, and then what will be possible?

I by no means want to reject the occupy movement, for me it is rather an important education program as it was the case in Hong Kong. It has to end, but it has to be restarted in a more profound form. This in turns poses two other questions: firstly how can we develop a new imagination of communal life? Secondly how can we develop a new practice of resistance that allows us to leave behind the sentiments of the post-modern rootless and uncertainty? In the past few years, during the translation of David Graeber's book, I find his return to Mauss' gift economy and his own research on the anarchistic nature of ancient communities fascinating, his description of the movement in Argentina, in the battle of Seattle, the mythical origin of communities haunted by god, witches and dead spirits. On the other hand, I start to think Kojin Karatani's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world history provide a critique to Graeber's program<sup>(7)</sup>. For Karatani, gift economy is the "return of the oppressed" in a Freudian sense. His vision of the new economy or new world system has to base on gift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overcomes it in a much broader and institutional level. For me, his imagination went a bit wide when he expects that nation states given away their own sovereignty as gifts, but at least we shouldn't only think of returning to gift economy, but push it much further.

#### After Occupy — towards an unproductive public ruin?

These questions may allure us to those programs in the 18th century, Charles Fourier's phalanstère, William Morris' idea to make all works an artistic

production, Marcel Mauss' co-operative movement – those I often find very fascinating. One of the project that really stimulates me, and I would like to further theorise is the practice of the Youth Autonomous Lab in Wuhan. Some friends rent a place in a small village, they are anarchists, but they are not allowed to claim themselves as anarchists, since it is illegal. One of the member Maidian told me that, once he invited the folk musician Xiao He to play for the villagers. Xiao He used to be a guitarist of a heavy metal band Glorious Pharmacy but now he made a better carrier by singing folk songs, probably China's number 1 folk song musician today. What happened is that Maidian received a call from a local newspaper, which wants to nominate him as one of the 10 most creative young people in the region because he himself is a punk musician and he with his band had a tour in Europe in 2010. Maidian immediately refused, but of course the reporter didn't give a shit, he just wrote. He has the keyboard anyway. This danger is immanent. Sometimes you don't have the choice to be a spectacle or not.

We had some long discussions. The question for us is how to move away from spectacles? It is true that almost all artistic productions can be easily absorbed as part of the aesthetic for the reproduction of social relations. What is at centre of his project is to escape, to produce lines of flight, not into a spiritual world, but to a public ruin, to a ruin without productivity. A ruin is probably a place where you can have aesthetics without arts, you can sense it but in most cases you don't want to possess it. Because it is the past, as Georg Simmel noted, it is the triumph of nature against the spiritual form of human works. On the other hand, Simmel sees the ruin as one of the most peaceful place, where he compared with "returning home". This concept of Heimlich contrasts immediately with Freud's Das Unheimliche, the Uncanny. This is a dialectical moment of a ruin, it can struck us with the destruction of human civilisation hence produces an uncanny feeling of human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t also gives us a perpetual peace, which also means harmony.

Maidian mentioned the concept of "repairing" a public ruin. For example, there is a platform next to the waterfront in Wuhan University, because a young man was drawn to death during swimming, his family decided to sue the university and the estate company

which manages the platform. By the end the university had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but then they also decided to close the platform by adding a huge iron fence. It is the easiest way to solve the problem for sure, but this doesn't exempt it from being a stupid one. Now the platform and the waterfront are abandoned, it becomes a ruin. What they have been trying to do, is to re-open the ruin that allows people to use it again, by displaying welcoming signs, maps, routes. I see this as a critical question, what does it mean by "repairing a public ruin"? We can imagine two ways, firstly does it brings back productivity by reactivating the abandoned space? We can imagine if someone is going to have some parties to celebrate that they have transgressed the taboos, or they announced that they have reclaimed the public space, then it will become another spectacle again.

Or we can ask, does it mean by making the ruin remains a ruin on its own, that is to say to make it as a "home" – paraphrasing Simmel's sense of "returning home" of ruins? The ruin gives us a sentiment of melancholia and the impression of frigidity of human existence, as Walter Benjamin described in his arcade project, which can also serve as a dialectical image. I would like to move away from this. Maybe we should no longer aim to discover the dialectical moment of consciousness – a revelation nor a shock – but rather to make things invisible through quotidian practice. The traditional Marxist thought understand that the experience of class difference only arises during confrontation, but probably this confrontation should not be an exception but rather a immanent status of being – something not even being questioned. One can go there, do whatever one can, but say nothing. There is no site of resistance, because everywhere is the void, everywhere is the site.

I am allured to the question of silence, or even unconsciousness. Revolutions of capitalism have been always silent, it doesn't really tell you that I am going to have a revolution, it took them decades or hundreds years to realize a financial system as today. Lets remember that the first credit card was produced in 1969 one year after the most revolutionary moments of the 20th century. Lets also don't forget that the introduction of pension fund happened in the united state in the 80s, when there wasn't much resistance against it. It would

<sup>(5)</sup> Lefebvre, *Ibid.*, p.45

<sup>(6)</sup> Michael Hardt and Tony Negri, *The Multitude*, Penguin Books, 2005

<sup>(7)</sup>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Chinese translation), 2012

<sup>(8)</sup> Simmel, *The Ruin, 1911, in Georg Simmel, 1858-1919*, Kurt Wolff tran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59, 99

be too ambitious to give a new image of revolution here, but I think in order to think beyond occupy today, it is necessary to confront this question of silence. When David Graeber described the anarchic organisation of small villages in Madagascar, he was not describing an organized resistance, but the everyday life of the habitants. How are we going to re-imagine everyday life and revolution? Maybe we should become numb, nothing to lament and nothing to celebrate. Let me end this with another quote from the Programme élémentaire du Bureau d'Urbanisme Unitaire, and maybe today we can take the idea of the revolution of everyday life in a quite different sense, if not even reversed:

"We are not contending that people must return to some stage previous to the era of conditioning, but rather that they must go beyond it. We have invented the architecture and the urbanism that cannot be realized without the revolution of everyday life — without the appropriation of conditioning by everyone, its endless enrichment and fulfilment." ①

## 또 다른 슈퍼 파워의 등장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대항문화



(a)

(a)  
《세계사회포럼》, 서울, 2003

2003년 2월 15일 필자는 “부시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다”, “이라크침공 반대”, “폭탄 말고 교육에 돈을 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제반전 행동의 날’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반전행진에 참여했다. 무고한 생명의 죽음을 가져올 잔인한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정의감에 반전시위에 참여한 필자는 소수이지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날 5천여 명이 모였다는 사실에 다소 고조된 상태로 하루를 마감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국제반전 행동에 대한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세계 6백여 도시에서 2천만 명이 반전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2백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하이드파크 공원에 출현했다. 이 같은 현상을 보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에 또 하나의 슈퍼 파워가 등장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슈퍼파워는 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의 공동행동 즉 글로벌한 시민사회인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어떤 연대감과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같은 생각과 행동, 즉 프라시스프라이스 대항문화 또는 저항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여러 분석과 해석이 있지만, 필자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분석은 모순적이게도 세계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세계화는 정제된 개념이 아니라 동적이며 여러 가지 측면과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정보,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며 위에서부터 진행되는 것과 아래로부터 변화를 지향하며 진행되는 형태도 있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불리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지배계층과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화, 정보, 기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동 또는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구의 공간과 시간이 압축되고 많은 사람이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게 되었으며